광주상의 회장 선출 정관 개정안이 12일 우여곡절 끝에 의원총회를 통과한 가운데, 마형렬 광주상의 회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실시됐던 불법·탈법선거를 둘러싸고 법정소송까지 제기된 이후 3개월 가까이 회장 공백기간을 겪었던데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거규정에 의해 후임 회장이 선출된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물론 지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상의 회장 선출 정관 개정안 통과

차기 회장 누가될까 '초미 관심'

현 마형렬회장 15일 임기만료, 불출마 표명 안해

금호측 "약속 지켜라" 경고…자천타천 후보 3~4명

◇**향후 일정**=개정된 선거규정에 따르면 후임회장 선출은 15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새 선거규정은 호선으로 치러지던 '교황선출방식'이 아니라 선거일 4일 전까지 회장 입지자가 입후보해 정견을 발표하게 돼 있어 이달 20일 이후에나 입지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마회장 출마 여부 및 거명 인물**=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마 회장이 19대 선거 당시 '후배를 육성하겠다'는 발언이나, 지난해 금호측이 제기한 '임직원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에 관한 광주시 등 4자 합의를 뒤집고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그러나 마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출마여부 등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 참석자들로 하여금 출마의 뜻을 읽게 하기도 했다.

이밖에 박흥석 광주상의 부회장을 비롯해 P씨, R씨, K씨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금호측은 "후임회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마 회장이 재출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후임 회장 선거 제대로 이뤄질까**=12일 정관개정안을 추인하는 의원총회는, 지난해 19대 회장선거에서 노출됐던 마 회장측과 반 마회장측의 힘겨루기의 재판이었다.

마 회장의 보궐선거 재출마를 원천봉쇄하려는 반 마 회장측은 임원 입후보 자격기준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마 회장은 이날 보궐선거 출마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인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우회적으로 출마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금호측과 일부 의원들은 "마 회장이 두번의 약속을 어기고 출마할 경우 '임직원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마 회장의 출마를 막겠다"며 경고해 후임회장 선거가 제대로 실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호측은 "광주시·광주지법·금호·남양 등 4자가 지난해 합의한 것은 마 회장의 전반기 임기(1년6개월)를 보장한 의미도 있지만, 임기 수행후 회장직을 그만두라는 기존 관결효력도 유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관 무엇을 담았나**=가장 큰 변화는 현행 회원 1인 1표에서 회비부담액에 따라 24표까지 선거권을 주는 복수선거권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의원정수 또한 43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난다.

회장선거의 경우 연임제한이 눈길을 끈다. 현행 규정에서는 연임제한이 없었으나, 새로운 정관은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말썽을 빚었던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선거일 3일전에서 선거인명부 열람마감 2일후로 변경했고, 위임장 재교부 요건 및 대리투표자 구비서류 등을 강화해 불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암묵적으로 줄서기를 강요했던 '교황선출방식'에서 벗어나 선거일 4일전까지 회장입지자가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은 회장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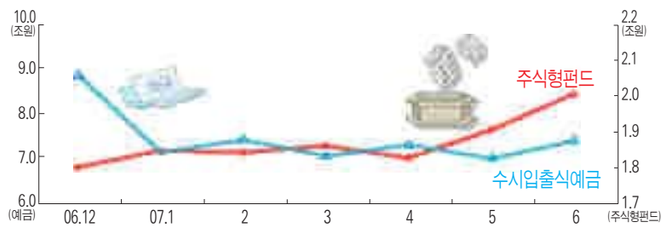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바이오 코리아 2007' 개막 국내 바이오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 지원, 신기술 정보교류의 장인 '바이오 코리아 2007' 행사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심장수술시 이용하는 박동형 혈액펌프(Twin-Pulse Life Support)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자금도 펀드에 몰린다

은행 단기예금 정체속 6개월새 3,444억 유입

■ 광주·전남지역 수시입출식예금 및 주식형펀드 추이



올들어 증시호황을 타고 주식형 펀드로 시중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은행 단기예금은 정체된 반면 주식형 펀드의 수탁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은행권의 단기예금인 수시입출식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9조165억원이던 것이 올해 6월말 7조7천749억원으로 1조2천416억원(-13.7%)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증시호황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수시입출식예금이 빠져 나가기 시작해 1월에는 잔액이 7조5천585억원으로 1개월만에 1조4천580억원(-19.2%)이나 감소한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주식형 펀드 잔액은 지난해 말 1조8천187억원에서 올해 6월말 2조1천631억원으로 3천444억원(18.9%) 급증했다. 5월이후에는 증가세가 가속화 돼 2개월만에 3천33억원이나 늘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신풍 -필로스 테크 코리아 기술 제휴

광주 평동산단 금형집적화단지에 소재한 금형 열처리 전문회사 (주)신풍(대표 조우석)이 12일 티타늄 나노 열처리 기술 특허를 보유한 (주)필로스 테크 코리아와 기술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주)필로스 테크 코리아는 세계적인 열처리 전문회사인 필로스 테크놀로지(주)의 한국지사다.

이번 기술제휴로 (주)신풍 등 금형집적화단지 업체들은 본격적인 품질제고에 나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성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티타늄 나노 열처리 기술은 기존 고온단조형 열처리 방식에 비해 작업 시간이 짧고 재질이나 치수 변화가 거의 없어 금형의 수명을 최대 10배까지 늘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주)신풍은 이날 기술제휴와 함께 '필로스 호남 열처리 센터'도 개설키로 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中企 정책자금 대출 급증

韓銀 총액한도대출 2,526억 지난해 말보다 32%나 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단비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역내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2천526억원으로 지난해 말 1천920억원에 비해 605억원(31.5%) 급증했다.

부문별로는 지역특화산업 대출이 1천19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인 47.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신기술개발 대출 759억원(30.0%), 유관기관추천 대출 308억원(12.2%), 긴급지원자금 대출 221억원(8.8%) 순으로 집계됐다. 증가율 순에서는 수출유망기업 대출이 166.5%로 가장 많이 늘었고 신기술개발 대출(108.7%), 지역특화산업 대출(56.1%)이 뒤를 이었다.

총액한도대출은 특히 지난 2005년 말에 비해 86.0%인 1천168억원이나 크게 늘었다.

총액한도대출은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대출재원을 저리에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 입장에서는 시중보다 싼 금리에 정책자금을 받아 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임진규과장은 "총액한도대출 대상은 벤처 및 신기술개발업체, 지역 특화산업 등과 관련된 업체들로 총액한도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지역내 중소기업들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마음놓고 기술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光銀 신용등급 'AA+'

한국신용평가는 11일 광주은행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평가했다.

한신평은 광주은행에 대해 "광주, 전남지역 내 높은 고객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영업 성장이 가능하며 자산건전성 개선과 자산 증가로 이자부문 이익이 증가할 것"이며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영업과 재무상 많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건강식 등 '식품 리콜' 늘었다

상반기에만 60건 달해 작년보다 2배이상 ↑

상반기 물품이나 용역의 결함에 따른 리콜이 작년 동기에 비해 53% 늘었으며 이중 식품 관련 리콜은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리콜 건수는 모두 1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1건에 비해 53%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식품 리콜이 60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의 27건에 비해서는 122% 급증해 리콜 증가세를 주도했다. 식품 리콜은 2004년 상반기 7건에서 2005년 상반기 22건, 2006년 상반기 27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식품 리콜의 주요 대상은 주류와 냉동수산물, 건강식품류, 차류, 젤리류 등으로 집계됐다.

이런 식품 리콜의 급증세는 수입산 식품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기관의 안전관리 노력 강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분석했다.

또 상반기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실시된 리콜은 10건이며 이는 모두 중국산 아동용 장난감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장난감은 납 과다 함유로 미국에서 리콜된 직후 국내서도 같은 제품 10종(1만3천286개)이 리콜됐으며 수입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해외에서 실시된 리콜이 국내에 연결된 사례"라며 "국제거래 증가로 인한 저질 위해제품 확산 가능성과 더불어 앞으로 리콜 정보 등 소비자정보의 국제적 공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